

2008 새해설계 ③

소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 훈 태

본소 확장이전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대형마트 입점으로 하나로 마트 수익감소 조합원 전이용해야

2007년6월12일 취임하여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소홀농업협동조합 고훈태(사진·64)조합장은 "조합 본소 건물을 신용사업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 하나로 마트 자리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며 하나로 마트는 1천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본소 옆에 신설할 계획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소홀농협 신용사업은 2007년말 현재 예수금평균잔 1천637억5천300만원에 도달하여 상호금융대출평균잔 1천548억4천900만원을 운용하였으며 예수금 평균잔은 전년대비 11.8%, 상호금융 대출평균잔은 11.4% 성장했다고 밝혔다. 예대비율은 106.7%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손익을 높이기 위해 연체판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연체비율을 0.78%로 낮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소홀농협 공제사업은 전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사업확대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었지만, 삼천만인 보장공제 신규추진 우수사무(전권위), 생명·손해공제료 증대운동에서도 우수사무로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으며 2007년 총 공제료는 91억7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9%가 성장했으며 공제수익은 8억9천600만원을 달성했다.

경제사업은 2007년도 총 매출액 266억1천100만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사업량을 보였다.



구매사업부문을 55억7천500만원으로 유류사업 등 각종 사업의 활성화로 39.98%의 성장을 보인 반면, 마트부분은 0.49%, 판매사업은 4.79% 감소했다.

2007년 비 수매는 일반농업비 1천118톤, 고품질비(고시히카리) 125톤으로 총 1천243톤을 수매했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고품질 쌀인 순교루쌀(10kg)을 판매했다. 현재 통합 경제사업소의 운영으로 농업인 조합원 및 지역 주민에게 영농자금 공급과 복지 문화사업 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유류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홀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고품질벼 육성사업추진으로 규신질비로·벌써종자지원·포장재개발 등에 283300만원을 지원했고 영농생생비 절감을

노래교실, 기계조교실, 방학특강 어린이 스피치·글쓰기 교실 등을 운영하여 문화보급에도 최선을 다했다. 실버생활관리사 과정 교육을 통한 수료생을 중심으로 실버생활필수과를 개설해 각 열 농회별 경로당을 순회, 봉사활동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 조합장은 소홀농협 2007년 말 현재 총자산은 2천136억4천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6% 성장했으며 자기자본은 21395천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9% 성장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비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이는 건전 경영의 기초로 앞으로 출자금 증대, 인여금의 내부적립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늘려 조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조합장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4개소가 들어와 있어 미트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농협의 모든 사업을 집어넣어 지역발달에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고 조합원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지급, 원로조합원 유대사업으로 상공권 지급과 농기계 무상수리지원 및 조합원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하고 환경보존활동 및 생활주변 방역활동지원 등 각종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머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한 보편이야기 21

준비된 은퇴, 30년을 좌우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장생(長生)의 리스크이다. 즉,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위험이다.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평균 수명보다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70~80세경에 재산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가진 돈을 다 써 버렸는데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제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5세, 여성이 82세 정도이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등 고령 사회의 단계에 들어섰다.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오는 2019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 인구 5명당 1명 꼴로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기존의 사고는 맞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국민들처럼 투자를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은퇴설계, 왜 준비가 안 될까? 즉, 계획 없는 지출과 은퇴자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현재 노후 대책 수단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3층 보장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세제혜택 등을 통해 부양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대한 고갈률과 퇴직금의 중간 정산, 예상치 못했던 조기 은퇴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1, 2층 보정제도는면 부족함이 많은 것이 다수의 생각이다. 그럼 은퇴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기관과 통계자료와 각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은퇴자금의 적정수준은 전차년말보다. 나의 은퇴자금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약 4~5여년의 자금을 은퇴 시기가 물가 상승률로 반영한다면 은퇴 시 실질 금액은 6~10억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 30~40대라면 연액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영실적에 따라 해약 환급금과 사망보험금 및 연금에이 변동하므로 펀드 운용실적이 상승할 경우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투자 실적이 아무리 약화가 되어 말리더라도 끈두박질한다 해도 연금 개

시 전에 사망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주 보편성을 최저 보증한다. 또 어떤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하면 사망비 매 10만달러씩 5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 계약자 적립금의 1%의 산출금에 해당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를 특별배정 적립금에 추가로 투입하여 준다. 또한 연금 개시시간 제보통기간에 따른 특약의 보장을, 연금 개시 이후 보장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5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입원 및 수술을 보장해 주어 보험의 보장도 주욱 계속 된다. 물론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이니 만큼 비싸게 혜택과 30만원 이상이면 0.3%~1.3%의 보령료 할인 혜택까지. 세테크까지~

이미정  
코인+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능이버섯백숙

12가지의 재료사용으로 담백한 육수 맛 최고



대표 김 춘 희

각종 고기류와 참깨가루인 능이버섯은 약 29종류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E, 비타민 C 등 다량 함유되어 있어 버섯종의 으뜸으로 손꼽는 식품이다.

열매에 인논이, 아삭이, 삼표고과 할 정도로 능이버섯의 효능은 모두다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버섯종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에 개점한 능이버섯백숙(포천점) 소홀을 이가필리 326 대표 김춘희)은 정직한 재료 사용과 독특한 맛으로 꾸준하게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능이버섯' 치매와 노화 방지에 효능 최상의 재료사용으로 고객에게 보답

개점한 지 3년이 안된 능이버섯백숙을 이처럼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이유는 고객을 우롱하지 않는 정직한 재료와 최상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고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능이버섯백숙의 주재료인 능이버섯은 김 대표의 부근(경양면)이 음식업에 통달하기 전 식복부 해운을 했던 경험들 토대로 품질이 으뜸인 북한산(자연산)과 중추산(자연산)을 수확해 사용한다. 또한 능이버섯 요리백숙에 사용되는 오도 불타고 있다. 자연산 능이버섯은 암 예방과 신장, 전신, 감기에 효능이 있으며 시원 담백한 육수 맛은 진날 과음한 분들에게 그만이다.

능이버섯 탐백숙에 사용되는 닭 또한 냉동 닭이 아닌 토종닭(생 닭)을 매일 필요한 양만큼 주

문해 사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요즘 고객들은 양보다 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어느 음식점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지를 고객들은 음식 맛을 보면 금세 알아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개점 시부터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변함 없는 맛을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고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평일엔 의정부 서울 등에서 약 절반 이상고객들이 입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온다. 주말엔 외지에서 오는 고객들이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외지에서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능이버섯 백숙은 모든 백숙 요리에 맛있는 참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참반도 여러 곳에서 생산된 참살이를 사용해 보았지만 포천 운현에서 생산된 참살이 질이 좋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모든 요리에 제공되는 말반찬은 전혀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채나물부터 약 11가지 이상인 정성스럽게 차려져 고객의 식단에 제공되고 있으며 능이버섯을 갈아서 만든 '진면'은 고객들에게 독특한 맛을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능이버섯 백숙을 맛보기 위해서는 4인정 도가 인삼맛축이다. 담백한 육수 맛에 처음 반하

며주는 무한정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최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놓고 방문하면 한끼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거의 모든 고객이 예약으로 이곳을 찾는다

능이버섯 백숙은 양대 명칭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단 1년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능이버섯을 전조식부터 향이 진해 '향아'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자연산 능이버섯은 암 예방과 신장, 전신, 감기에 효능이 있으며 시원 담백한 육수 맛은 진날 과음한 분들에게 그만이다.

문의 전화 031)541-4470, HP: 017)743-9000

정영갑 기자 jk61@paran.com



지난 2006년 6월에 개점한 능이버섯백숙(포천점) 소홀을 이가필리 326 대표 김춘희)은 정직한 재료사용과 독특한 맛으로 꾸준하게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세의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내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시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후 및 부당 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무까지 추진 당하였더라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담보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받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 결정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난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조사과 (011-470-4422~4429)

산업안전사고 예방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 2006년 0월 05일 15시경 급속재료 폼 제작 옥외작업장에서 오후 작업종료까지 비가 내려 재봉에 비닐 천막을 덮기 위해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작업중 중심을 잃고 약 2m 높이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재해발생원인  
가. 고소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2.2m 상 승시켜 비닐천막을 덮는 등 고소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없이 작업을 수행  
▶재해발생원인  
나.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 지게차 포크 등 승차석외에는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나,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가 탑승하여 위험한 고소작업을 수행  
다. 지게차 주용도 외의 사용  
•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용 철지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고소작업대 등의 전용설비 사용  
• 고소작업시에는 전용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안전작업이 확보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게차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의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다. 지게차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연구원 경기북부지대응팀(011-426-4301)

국민연금 Q&A

1355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365명이 연간 820만 건 상담처리

아간·공휴일은 전화번호 남기면 다음날 통화가능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1년 서울지역 콜센터 개소에 맞춰 전화로 연금관련 상담을 해주는 텔레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텔레서비스는 전화와 컴퓨터를 연계한 상담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5'를 누르면 바로 전문상담원과 연결해 예상연금액, 가입기간, 보험료체납 상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간단한 문의사항은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간과 공휴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주는 상담에약도 가능하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단은 텔레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울 등 6개 권역별 콜센터(통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요원 365명을 배치, 상담하고 있다.

콜센터에는 연간 1200만 건 정도가 연결된다. 그 중 820만 건 정도가 상담원과 직접 통화, 국민연금관련 공공증을 해결한다. 공단은 콜센터 유지를 위해 한해 총 9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중 75% 정도는 상담원 급여로 지급된다. 콜센터 외에도, 공단은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이동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국민연금 자격 징수 관련 상담 및 접수, 장기고지서 및 특촉고지서 발급, 자정제 신청접수, 노령·장애·유족연금 상담 및 청구서 접수, 반환일시금 상담 및 접수, 자격확인 및 예상 연금액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단 인터넷 사이트(www.nps.or.kr)에 접속하면 공단 소개는 물론, 국민연금 문답 및 비전제서, 기금운용 내역, 외국

의 국민연금제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011-544-6700) 포천지사 031-544-6700